



*OECD Journal on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8**  
**Volume 10 Issue 1**

*Summary in Korean*

OECD 개발 저널

2008년 OECD 개발 협력 보고서 10 권 1 판

국어 개요

- 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가 발행하는 연간 개발협력 보고서는 최근의 국제원조 동향에 관한 통계 및 분석을 제공하는 핵심 참고자료다. 최근 취임한 에크하르 도이체르 DAC 위원장은 이번 첫 *개발협력보고서*에서 원조 효과성에 관한 아크라 고위급포럼과 개도국 원조 향상을 위한 노력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개발 예산은 오늘의 경제·금융 위기에 맞서야 할 뿐 아니라 최근 해에 개발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제기된 새로운 도전요인에도 맞서고 있다.
- .본 고에서는 원조 공여가 너무 많은 출처로부터 너무 많은 소액으로 이뤄지면서 생긴 원조 분절화 문제도 다루고 있다. 공여국 간의 비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거래 비용이 차츰 늘고 있으며 빈민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파트너 수원국 간의 투명한 향후지출계획 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권력 관계 변화에 더해진다.
- .끝으로 본 고에서는 개발정책을 인권, 환경 지속성 및 성평등에 연계하는 데 있어 원고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국가 사례를 검토, 5 가지 시사점을 보여준다.

“ODA 출범 이후 개발 환경은 급격히 변했다.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과제가 계속 떠오르고 게임 규칙도 필연적으로 변하고 있다. 2008 년에 우리는 몇 주만에 기존의 형식적, 비형식적인 국제 거버넌스 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지속적인 변화가 정착하는 것을 보았다.”

- 에크하르 도이쉐르, OECD DAC 위원장

도이쉐르 위원장은 본인의 첫 개발협력 보고서에서 새로운 개발원조 환경과 이어 이러한 변화가 OECD 의 개발원조위원회에 주는 의미를 살피면서 “수원국의 폭넓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의 공동목표가 서로 모순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없이 여러 부문에서의 향상을 촉진하도록 상호 지원적이며 일관되게 잘 고안된 정책에 기초한” 단체활동 강화를 호소한다.

또한 2008 년 9 월 “아크라에서 개최한 원조 효과성에 관한 제 3 차 고위급포럼에서 파리선언 목표 그리고 밀레니엄개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어느 때보다 명백하게 보인다”고 쓰면서 “그럼에도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눈에 띄게 명백하다”고 보고한다.

## 보고서 내용

아크라 고위급포럼에서는 2005 년 100 여 개 국가 및 공여기관이 채택했던 원조 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에서 제시된 5 대 효과적 개발 원칙 차원에 이뤄진 향상 측정에 착수했다.

**주인의식:** 개도국이 자국의 개발전략 수립, 제도 개선 및 정부 부패 해소

**일치:** 공여국은 개도국 목표와 일치한 지원 제공 및 현지 시스템 사용

**조화:** 공여국들의 원조활동 조정, 절차 간소화, 중복이 없도록 정보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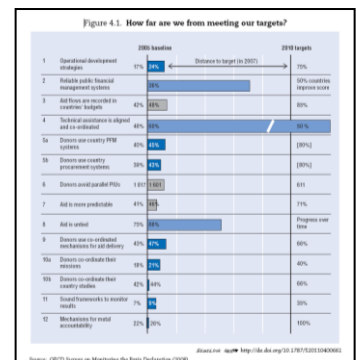
**성과위주 관리:** 개도국과 공여국은 성과 창출 및 측정에 중점

**상호책임:** 공여국과 개도국 파트너 모두 개발 성과 책임

상기 핵심 원칙 아래, 파리선언은 2010 년까지 달성해야 할 12 개 성과목표를 열거한다. 아크라 포럼에서는 이행 속도 진척이 가장 시급한 부문에서 참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포럼에 앞서 3 가지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2010 년 중간시점에서 파리선언 목표 달성 차원의 향상 또는 미달 여부를 점검한 것이다.

연구별로 범위나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겠으나 결과에 나타난 공통된 주제도 몇 가지 있다.

그림 4.1. 회의 목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 2010 년 목표 달성의 진척 여부는 목표별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 파리선언 목표를 달성하려면 책임 및 이행 강화가 필수다.
- 범정부적 차원의 공여국과 수원국 개입 확대만이 진척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데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기타 계층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여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파리선언 핵심 원칙은 잘 버티는 상황이지만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도 일부 있다.

## 아크라 행동계획

아크라 포럼에서는 빠른 진척이 필요한 핵심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 아크라 행동 계획을 마련했다.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근본적인 관계 재조정이 절실하며 이에 다음 사항을 중요시하고 있다.

- 원조 공여 차원의 첫 번째 옵션으로 수원국 시스템 사용
- 수원국의 예산 계획과 개발전략의 기획 및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강화
- 공여국이 내세우는 원조 조건은 수원국의 개발 계획을 위주로 수원국과 공동으로 수립, 이는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
- 원조 언타이드화 차원에 뚜렷한 향상 이룩
- 국내, 국가 간의 역할 분담을 개선하여 원조 분절화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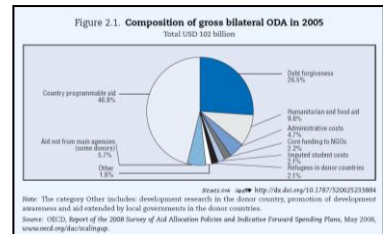
## 원조의 분절화 상태

원조의 분산 현상이 개발 차원에 가질 수 있는 원조의 효력 발생을 막는 주요 장애물이다. 원조가 너무 많은 공여국으로부터 소액 규모로 너무 많이 제공되어 불필요한 소모적 행정 비용을 초래하고 가장 원조가 필요한 곳에 원조기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최근 DAC 가 마무리한 최초의 국가별 원조배분정책 및 향후지출계획 조사에서는 원조의 분절화 정도를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 새로이 만든 국별 프로그램 원조 (CPA)라는 측정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CPA 는 수원국이 예산에 계획할 수 있는 공여액인데 다시 말해 ODA 총액에서 긴급 지원, 부채 탕감, 수원국이 계획할 수 없는 원조 등을 제한 나머진다.

조사 기준연도인 2005 년 DAC 회원국이 지원한 양자간 CPA 는 470 억 달러로 동년 양자간 ODA 총액의 46% 정도에 맞먹는 수준이었으며 2007 년에는 59%까지 올랐다.

**그림 2.1 2005 년 양자간 ODA 구성 (총 1020 억 달러)**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원조가 공여국들에 의해 너무 소액 규모로 분산되는 경우가 잦으면서 너무 많은 국가에 분할되어 있는 상태다. 2005-06 년 38 개 수원국이 25 개 이상의 DAC 회원국과 다자간 공여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였다. 공여기관의 총 원조액 대비 수원국별 원조액과 총원조액 대비 공여기관 비중을 비교하여 각 공여기관의 원조 집중을 내면 23 개 DAC 회원국 가운데 8 개만이 원조 집중이 50% 이상이 경우였다.

수많은 공여국에서 대체로 소액인 원조를 받는 수원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성향이 보다 뚜렷이 드러나는데 예로 베트남은 29 개의 주요 공여국 중 17 개국 출처 원조가 전체 원조의 10% 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2005-06 년 공여국 수가 10 개 미만인 수원국이 38 개나 되며 대부분이 소도서국인 경우다.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공여국들의 노력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역할 분담을 개선함으로써 특정 개도국 또는 의료, 교육 등 같은 특정 부문에서 활동하는 공여기관의 집중, 거래비용 감소, 공여노력 조정을 장려하고 또한 원조 공여를 공여기관의 선호국가뿐 아니라 모든 개도국에 적절히 확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원조 예측가능성

수원국의 원조 관리 및 배분 계획 노력은 원조의 예측 불가능으로 좌초될 수 있는데 공여기관이 지출계획을 충분히 일찍 알려주지 않아 수원국 정부가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없다거나 공여국들이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2008 년 DAC 원조배분정책 및 향후지출계획 보고서에서는 향후 원조흐름 전망을 토대로 수원국별 실제 또는 예측된 원조규모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불확실이 일부 제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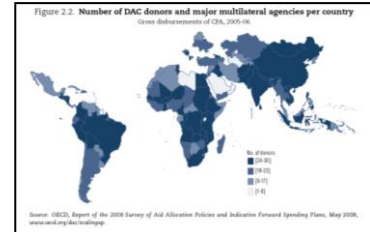
상기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의 순 ODA 감소는 2010 년 원조목표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신호
- 부채 탕감 감소가 예상되면서 현재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형태의 원조를 대폭 증가할 필요 수반
- 2010 년까지 분쟁 지역, 취약국가가 감수할 CPA 감소 규모는 2000 만 달러 이상, 따라서 지역 복원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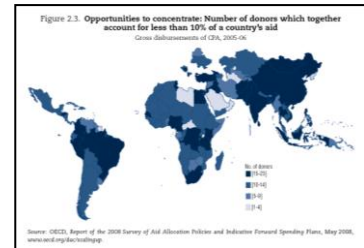
對 아프리카 원조규모 차이가 특히 심각하다. 2005 년에 아프리카는 2010 년까지 250 억 달러의 추가 원조를 약속 받았으나 이 목표치에 이르려면 총 ODA 가 연간 17% 이상 늘어야 한다.

상기 DAC 보고서에서는 102 개 수원국의 총 원조액을 100 억 달러로 차츰 늘릴 계획과 더불어 2005-10 년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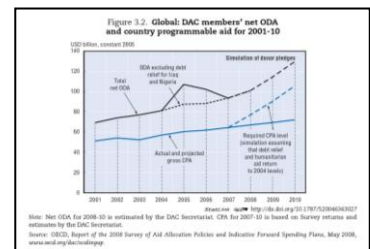
**그림 2.2 국가별 DAC 공여국 및 주요 다자간 공여기관 수, 2005-06 년 CPA 지출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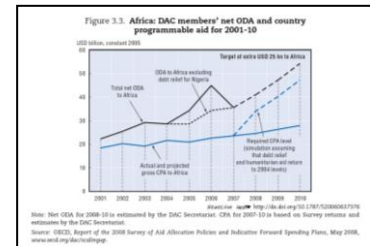
**그림 2.3 원조 집중 기회: 지원한 원조 합계가 수원국 원조의 10% 미만인 불과한 공여국 수, 2005-06 년 CPA 지출액 기준**



**그림 3.2 2001-2010 년 세계 DAC 회원국의 순 ODA 및 CPA 규모**



**그림 3.3 2001-2010 년 對 아프리카 DAC 회원국의 순 ODA 및 CPA**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등 51 개국에서 CPA 가 줄어들 전망을 드러내고 냈다. 21 개국의 원조는 절대규모가 각각 2000 만 달러로 감소하게 된다.

### 포괄적 개발 목표 달성에 파리선언 활용

개발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위해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성평등, 환경 지속성, 인권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예로 여성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면 아동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널리 인정되면서 2005 년 파리선언 채택은 약속을 실행으로 옮길 계기를 새로이 마련해주었다. 사례 연구를 통한 5 가지 교훈을 토대로 포괄적 개발 목표 실현 차원에 어떻게 파리선언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 교훈 1: 빈민 여성과 남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 주인의식과 개발성장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진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가능한 넓은 공동체를 정치, 정책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짐바브웨, 페루 사례를 보면 의료 정책, 의료 관행 및 프로그램 수립에 빈민인구를 관여시킴으로써 뚜렷한 건강 향상을 지속적으로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 교훈 2: 인권에 대한 성과위주 접근방법은 모든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소외계층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보도록 하려면 그들의 입장과 요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만큼 성, 출신민족, 사회신분 등을 반영하여 분류한 데이터를 토대로 “세분화된 모니터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교훈 3: 공동 원조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개발 우선순위 부문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공여기관은 공동 원조 전략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인권, 환경 지속성, 성평등 문제가 진척되도록 할 수 있다. 예로 성평등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교우위와 역량을 갖춘 국가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성평등 목표 진척에서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다.

#### 교훈 4: 말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인권, 환경 지속성, 소외,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훌륭한 정책 지침이 수많이 있었지만 이는 충분치 않다. 우간다, 시에라리온 사례를 보면 적절한 예산 계획, 모니터링 체계, 공동체 차원의 파트너십, 민간사회 지지, 좋은 의도를 실행 또는 효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 구축 등이 중요함을

표 3.2 이미 계획된 증액 - 1 억 달러 이상 증가

Partner	ODA received (USD million)		Increase 2005-2007		% increase	Country (2007)
	2005	2007	2005-2007	2007		
Benin <sup>a</sup>	1 002	2 793	1 791	1.8	1.8	38
Burkina Faso <sup>a</sup>	428	1 375	947	2.2	5.2	34
Burundi <sup>a</sup>	1 402	2 090	688	0.5	0.4	41
DRC <sup>a</sup>	1 094	1 917	823	0.6	0.2	21
Indonesia	1 023	2 046	1 023	0.6	0.6	9
Madagascar <sup>a</sup>	469	870	401	1.6	3.2	34
Mali <sup>a</sup>	283	1 127	844	3.0	10.7	7
Togo	679	848	169	0.2	0.2	12
Tanzania <sup>a</sup>	1 229	1 834	605	1.4	1.2	11
Zambia	298	847	549	1.6	5.7	38
Zimbabwe	284	878	594	0.6	0.2	14
Uganda <sup>a</sup>	907	1 244	337	0.2	0.1	19
Kenya <sup>a</sup>	1 222	1 440	218	0.4	0.2	22
Senegal	469	682	213	1.9	2.2	34
Uganda (non-IDA) <sup>a</sup>	289	1 120	831	0.2	0.1	17
Other regional <sup>a</sup>	40	252	212	1.4	16.1	37
Armenia	37	289	252	2.0	5.3	41
Moldova	1 004	1 120	116	0.9	0.9	13
Mozambique <sup>a</sup>	1 212	1 375	163	0.9	0.7	43
Myanmar <sup>a</sup>	269	667	398	1.7	2.0	42
Nicaragua	289	381	92	0.2	0.2	13
Rwanda <sup>a</sup>	421	701	280	0.4	0.2	12
Tanzania <sup>a</sup>	19	289	270	1.5	7.3	23
Yemen <sup>a</sup>	1 412	2 069	657	0.5	0.4	19
Yemen <sup>a</sup>	19	238	219	2.8	14.7	49
Yemen <sup>a</sup>	289	427	138	2.4	2.0	42
Yemen <sup>a</sup>	193	317	124	0.8	0.4	37
Yemen <sup>a</sup>	193	297	104	0.2	0.1	32
Algeria <sup>a</sup>	2 405	1 125	1 280	0.8	0.3	11
European Union (non-IDA)	429	739	310	1.0	1.0	42
Guinea	194	219	25	0.3	0.3	41
Zambia <sup>a</sup>	393	675	282	1.3	0.8	44

알 수 있다.

### 교훈5: 공여국 지원 조화는 취약 여건의 국가 역량 재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취약국은 파리선언 원칙을 직접 이행할 능력이 수시로 부족한 상태지만 이 원칙은 사실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좋은 본보기가 되는 2007 년도 시에라리온 선거 성공을 보면 개발파트너 국가 간의 원조 조화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던 경우다.

### 양자간 공여국의 정책 및 노력

2007 년 DAC 회원국의 순 ODA 총액은 1035 억 달러로 줄면서 8.5%의 실질 감소를 보였다. 부채 탕감을 제하면 ODA 는 2%의 실질 증가를 이룬 것인데 이 점이 전체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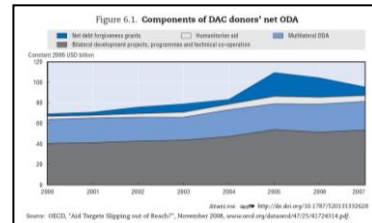
위 그림은 2005 년, 2006 년 부채 탕감이 순 ODA 총액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5 년 인도지원의 소폭 증가도 드러나는데 이는 주로 인도양 쓰나미와 파키스탄 지진에 따른 특별지원이었다. 2006 년 양자간 개발 계획과 프로그램은 소폭 줄었지만 2007 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공여국이 핵심 원조 프로그램을 점점 늘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척 속도는 2010 년까지 목표를 실현하기에 너무 더딘 편이다. 2005 년 글렌이글스 G8 정상회의, UN 밀레니엄 +5 정상회담에서 공여국은 2010 년까지 ODA 규모를 (2004 년 가격과 환율의 2004 년 수준 기준) 500 억 달러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이 중 약 210 억 달러가 제공되거나 계획되었다. 다시 말해 목표치에 이르려면 공여국은 여전히 2004 년 달러 기준 300 억 달러(2007 년 달러 기준, 340 억 달러)의 추가액을 원조예산에 포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앞으로 원조 예산 삭감이 원조 위기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양행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도이체르 DAC 위원장의 공동 호소에 세계의 주요 공여국은 2008.11.24 일 원조 공여를 약속하면서 “원조규모를 늘리고 약속과 일치한 수준으로 원조 흐름을 유지한다는 초기의 서약 사항을 재확인”시켰다.

개발협력 보고서는 주요 양자간 공여국들이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위해 공동 작업하는 포럼인 OECD DAC 의 위원장 책임 아래 매년 발행하며 최신의 국제원조 동향에 관한 분석 및 자료를 제공한다.

그림 6.1 DAC 공여국의 순 ODA 구성



© OECD 2009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